

[보도자료] 쿠팡, 가전 ‘슈퍼세일위크’ 도입 한달 할인 계획 보고 쇼핑

2022. 10. 3.



- 10월 한 달간 카테고리별 할인 일정 공개해 고객은 계획적 쇼핑 가능
- 1주차 디지털가전 최대 45% 할인 혜택과 함께 노트북 카드 중복할인도
- 삼성·마이크로소프트·델·소니·레노버·에이수스 등 30개 이상 브랜드 참여

2022. 10. 03. 서울 - 쿠팡이 10월 한 달간 매주 카테고리를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‘슈퍼세일위크’를 진행한다.

이달 처음으로 선보이는 쿠팡 ‘슈퍼세일위크’는 3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네 차례에 걸쳐 카테고리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. 쿠팡 가전 카테고리는 그동안 세부 카테고리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프로모션을 ‘슈퍼세일위크’로 일원화했다. 고객은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될 프로모션을 미리 알고 쇼핑을 계획할 수 있다.

이달 프로모션은 1주차 노트북/디지털가전, 2주차 대형가전, 3주차 생활/주방가전, 4주차 창고대방출을 테마로 진행된다.

오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1주차 ‘슈퍼세일위크’에선 노트북, 키보드/마우스, 이어폰, 게임, 태블릿PC 등 디지털 가전 상품을 최대 45%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. 특히 삼성전자, 델, 에이수스,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인기 브랜드 노트북은 카드 중복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10일부터 16일까지 2주차에는 대형가전을 할인한다. 냉장고, 김치냉장고, 세탁기/건조기, 청소기, TV 등 대형가전을 쿠팡 로켓설치로 구매할 수 있다. 로켓설치는 쿠팡과 제휴한 전문 설치기사가 직접 배송 및 설치하는 서비스로 빠르고 안전한 배송이 특징이다.

17일부터 23일까지 3주차에는 주방가전, 난방가전, 헤어드라이어, 면도기, 전동칫솔과 같은 생활가전을, 24일부터 30일까지 4주차에는 창고대방출을 테마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. 창고대방출에는 리퍼상품과 최대 50% 이상까지 깎짝 할인되는 품목들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.

이병희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“쿠팡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일정을 공개하는 ‘슈퍼세일위크’를 기획했다”며 “카테고리별 정기적인 프로모션이 고객의 알뜰한 소비를 도와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